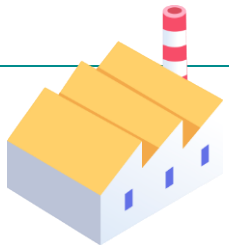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미국도 아시아도 천연가스 가격 강세



유틸리티 Weekly | 2026.01.3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5.0% 하회했다. 28일 종가 기준 WTI는 62.8달러/배럴(WoW +3.9%), 미국 천연가스는 7.2달러/mmbtu(+42.9%), 아시아 LNG 현물은 11.3달러/mmbtu(-0.4%), 호주산 유연탄은 109.1달러/톤(-0.2%), 원/달러 환율은 1,460.4원(-2.4%)을 기록했다. 아직 2022년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산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은 유가 연동 물량 대비 낮다.
-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11차 전기본 관련 노이즈는 일단락되었다.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12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이는 지난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신규 원전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추가 원전 반영 또는 장기 원전 목표 상향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목표치 상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수립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인터뷰, 보도자료 등으로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예정이다.
- 한국전력은 송전망 건설 적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기존 건설 기간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포함 10년 미만이지만 지연으로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제도와 기술 혁신을 통해 적기에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대규모 수요처로 연결할 계획이다. 한편 송전망 준공 지연의 원인이 기술이 아닌 민원인 만큼 현실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석탄 발전소 폐지 경매처럼 희망 입지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보상을 제시하는 시스템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 LNG 물량의 배부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용, 발전용 가격의 변동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물 비중이 높을수록 공급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량은 발전용이 도시가스용보다 많지만 물량의 변화폭이 크다. 도시가스용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직도입사업자(505만톤) 대비 소매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물량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발전용은 SMP 안정화 및 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지며 직도입사업자(739만톤)의 수익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집단에너지는 지역냉난방사업자의 열 판가와 생산 원가 모두 영향을 받지만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전까지 민수용 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발전용 원가 하락 여지가 있는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
- EU가 러시아 PNG와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LNG는 2027년 초, PNG는 2027년 가을부터 적용된다. 패널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존재한다. 다만 비상사태, 공급 안보 위협 시 최대 4주의 수입 금지 중단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러시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바뀌게 되어 완화 국면이 조성되면 공급 과잉과 LNG 톤마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러시아 물량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계획된 수출 프로젝트들만 예정대로 진행되면 아시아와 유럽 가스 가격은 낮아질 전망이다.
- 한파로 미국 내수 가스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ERCOT에 데이터센터 예비 발전기 가동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PJM은 용량 확보를 위해 석탄/석유 발전소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만약 내수 공급 부족, 생산 차질 등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일시적으로 LNG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유럽은 최근 미국산 가스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난방 대응 목적 가스 수요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어렵다. 연중 평균 가스 재고를 겨울철 수요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기 어려운 재화인 만큼 LNG 형태의 수입이 불가피한데 단일 국가 조달 비중이 높으면 유사 시 지난 2022년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9일 종가 기준 12,550원으로 전주대비 11.1%, YTD 21.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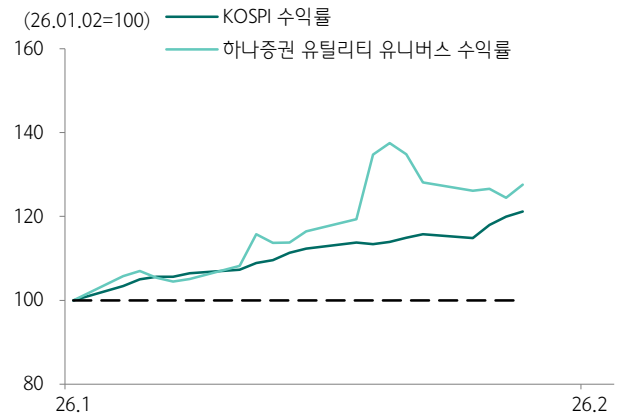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지역난방공사(Top Pick): 2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MoM +1.4%. 다만 원가 상승 대비 판매량 개선이 더 클 것으로 기대
- SGC에너지(Top Pick):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강세. 장기적으로 배출권 잉여 물량의 가치 상승 기대
- 한국전력: 유가 상승 부담을 환율 하락으로 만회. 다만 현재 레벨 대비 추가 상승 시 수익성 우려 부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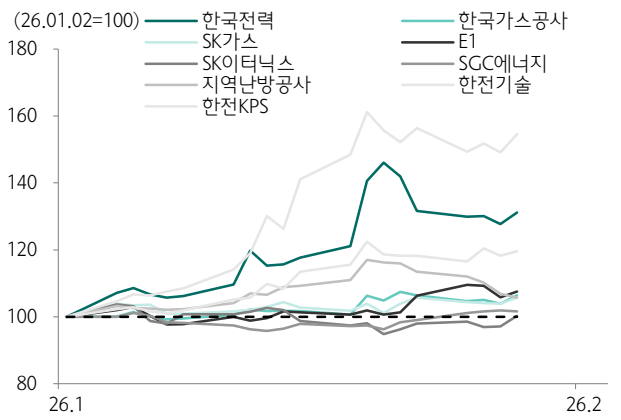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1/29)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5,221.25	5.4	8.8	13.8	21.2	(23,740)	9,874	13,406
한국전력	61,000	(7.6)	13.4	23.5	31.2	(1,607)	(805)	2,393
한국가스공사	40,850	(1.0)	4.5	6.9	6.4	(126)	122	25
SK가스	231,500	1.8	1.3	4.8	5.7	(13)	25	(8)
E1	86,900	6.1	5.8	10.0	7.5	(7)	7	2
SK이터닉스	20,450	4.1	(1.7)	(0.5)	0.2	(30)	4	27
SGC에너지	21,750	3.3	5.3	3.6	1.6	(4)	4	0
지역난방공사	100,000	(8.8)	(2.9)	3.3	5.7	(27)	10	18
한전기술	138,800	1.5	22.4	42.5	54.6	(558)	(52)	619
한전KPS	58,500	1.2	10.4	17.4	19.6	(18)	(107)	116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주요 뉴스

 # 1. 11차 전기본 반영 신규원전 건설, 원안 추진한다…2037년경 준공 목표 - https://shorturl.at/M0Lu8

- 기후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 SMR 1기 등 원안 추진을 위해 부지 공모 절차 돌입 방침을 발표
- 기후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 특히 전력분야 감축을 위해 석탄/LNG 감소 필요성을 강조
- 신규원전은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 및 선정을 거쳐 2037년-2038년 준공이 목표

 # 2. 송전망 건설 13년…한전, 혁신으로 벽 깬다 – https://shorturl.at/5eWRN

-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발표
-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전력망 건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저도 및 기술 혁신 분야 18개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
- 송전망 평균 건설 기간인 13년의 벽을 허무는 혁신과 시공자원 선제적 확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할 예정

 # 3. 배출권 가격 하루 만에 8% 급등…4차 계획 이후 본격 상승 신호되나 - https://shorturl.at/2sBHO

-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이후 첫 뚜렷한 상승세
- KAU25는 지난해 7월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톤당 1만원 안팎에서 정체 양상 기록하였음
- 정부가 총할달량을 줄인 데다 유럽 탄소궁격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급 변화 기대까지 겹쳐 시장이 반등 국면이라는 해석

 # 4. 발전·도시가스 엇갈린 셈법…가스公 배부기준, 전기요금 변수로 - https://shorturl.at/gZLiX

- 당초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사용해 현물 구매 원인을 제공한 부담자에게 현물 차액을 부담케 하는 공급규정을 개선할 예정
- LNG 중장기 물량 배부기준 개편이 논의 쟁점. 중장기 물량 확보시 원가 변동성에 노출되는 부담이 완화
- 발전업계는 구매실적이 높은 발전에 배부를 주장. 도시가스 업계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도시가스 중심 배부를 주장

 # 5. 서부발전, 1조3천억원 규모 오만 두큼 가스복합火電 수주 - https://shorturl.at/uwwfj

-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서 1조 3,000억원 규모 대형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주
- 투큼 가스복합 프로젝트는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으로 1조 3,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877MW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수주에 따라 한국의 발전설비 및 기자재 업체가 현지에서 증기터빈 등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고를 기대

 # 6.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곧 공사 착수…"포스코, LNG 구매 및 강관 공급 참여" - https://shorturl.at/cTMiF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포스코그룹은 LNG 구매 및 강관 공급 분야에 참여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랜파른 알래스카 LNG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철강 공급, LNG 구매, 프로젝트 투자부분에서 협력
- 1단계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독식하지만, 2단계 사업인 LNG 수출인프라 건설에는 LNG 구매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7. SK이노베이션 E&S, 호주 LNG터미널서 선적 시작... 14년 노력 결실 - https://shorturl.at/zcmtJ

-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터미널로 운송돼 첫 LNG 카고 선적까지 완료
- 국내 민간 기업의 첫 사례이며 지분 37.5%로 총 2조원을 투자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
- 이번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톤의 LNG를 확보, 이는 연간 LNG 전체 도입량의 3%에 달하는 규모

 # 8. EU,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LNG 수입 전면 금지 확정 - https://shorturl.at/i6Ng9

- 유럽은 27개 회원국 합의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승인
- 새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나 기존 계약은 2027년부터 적용 예정
- 회원국들은 2026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 다각화 국가 계획 제출이 요구

 # 9. 미국 전역 '역대급' 겨울 폭풍에 전력 비상… 텍사스,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까지 동원 - https://shorturl.at/F2ZU7

- 미국 에너지부는 극심한 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함에 따라 텍사스주에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
- 전역에서 100만 가구 이상의 정전이 발생하며 17,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 사실상 공항들의 기능이 정지
-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은 석탄 및 석유 발전소의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최대 용량 가동을 승인

 # 10. 벤처 글로벌, 레프솔 중재서 승소…LNG 계약 분쟁 '엇갈린 판결' - https://shorturl.at/oR2jG

- LNG 프로젝트의 장기 계약 물량 미공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중재 재판소가 벤처글로벌의 손을 들어준 것
- 이번 판결로 벤처글로벌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세 건의 국제 중재 중 두 건에서 승소
- 회사는 장기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남아 있는 중재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침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1월 28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430.4	1,465.1	1,442.4	1,426.3	1,447.4	1,440.6	(2.4)	(0.8)	0.3	(1.2)	(0.7)
달러 인덱스	Pt	96.2	98.9	98.0	99.1	107.9	98.3	(2.7)	(1.9)	(3.0)	(10.9)	(2.1)
WTI	달러/배럴	62.8	60.4	56.6	61.3	74.2	57.3	3.9	10.9	2.4	(15.4)	9.6
Brent	달러/배럴	67.6	65.3	62.3	64.9	77.6	60.9	3.5	8.5	4.1	(12.9)	11.1
Dubai	달러/배럴	65.5	63.8	60.4	66.5	81.3	60.9	2.7	8.5	(1.4)	(19.3)	7.6
Bunker	달러/톤	398.7	363.6	343.8	374.2	489.5	341.8	9.6	16.0	6.5	(18.5)	16.6
천연가스(HH)	달러/MMBtu	7.2	5.0	4.4	3.3	3.5	3.7	42.9	62.9	115.6	107.5	95.1
아시아 LNG	달러/MMBtu	11.3	11.3	9.7	11.2	14.0	9.6	(0.4)	16.2	0.6	(19.2)	17.6
유연탄(호주)	달러/톤	109.1	109.4	109.1	103.9	115.1	107.5	(0.2)	0.0	5.0	(5.2)	1.5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5년 11월	2024년 11월	YoY(%)	2025년 10월	MoM(%)	2025년 YTD	2024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480	6,262	3.5	6,801	(4.7)	81,721	80,356	1.7
	일반용	9,973	9,650	3.3	10,461	(4.7)	126,925	123,674	2.6
	산업용	22,225	22,754	(2.3)	22,157	0.3	256,919	262,493	(2.1)
	기타	3,398	3,264	4.1	2,706	25.6	38,501	37,881	1.6
	합계	42,076	41,930	0.3	42,125	(0.1)	504,067	504,403	(0.1)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9,856	9,288	6.1	10,461	(5.8)	130,161	126,415	3.0
	일반용	17,484	17,004	2.8	16,392	6.7	218,162	212,990	2.4
	산업용	42,209	43,141	(2.2)	37,273	13.2	465,185	436,173	6.7
	기타	3,675	3,407	7.8	2,966	23.9	42,409	40,434	4.9
	합계	73,223	72,840	0.5	67,092	9.1	855,918	816,013	4.9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2.1	148.3	2.5	153.8	(1.1)	159.3	157.3	1.2
	일반용	175.3	176.2	(0.5)	156.7	11.9	171.9	172.2	(0.2)
	산업용	189.9	189.6	0.2	168.2	12.9	181.1	166.2	9.0
	기타	108.1	104.4	3.6	109.6	(1.3)	110.2	106.7	3.2
	평균	174.0	173.7	0.2	159.3	9.3	169.8	161.8	5.0

한국가스공사

		2025년 12월	2024년 12월	YoY(%)	2025년 11월	MoM(%)	2025년 YTD	2024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2,569	2,614	(1.7)	1,715	49.8	18,988	18,662	1.7
	발전	1,306	1,351	(3.3)	1,302	0.3	15,893	15,966	(0.5)
	합계	3,875	3,965	(2.3)	3,017	28.4	34,881	34,628	0.7

지역난방공사

		2025년 12월	2024년 12월	YoY(%)	2025년 11월	MoM(%)	2025년 YTD	2024년 YTD	YoY(%)
판매량 (천Gcal,GWh)	열	2,477	2,572	(3.7)	1,341	84.7	15,112	14,343	5.4
	냉수	13	11	18.2	15	(13.3)	282	293	(3.8)
	전기	1,566	1,808	(13.4)	1,168	34.1	15,539	12,001	29.5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1월 22일(목)	1월 23일(금)	1월 24일(토)	1월 25일(일)	1월 26일(월)	1월 27일(화)	1월 28일(수)
SMP(원/kWh)	최대	186.11	185.41	133.97	133.11	148.21	134.61	134.67
	최소	92.92	97.35	72.20	0.00	76.02	87.69	92.90
	가중평균	112.86	115.08	95.88	88.56	106.47	104.60	117.58
수요예측(MW)	최대	86,381	85,679	69,130	67,680	82,002	80,807	83,229
	최소	63,708	63,640	56,842	50,192	56,756	60,664	62,210
	가중평균	75,905	74,303	63,146	59,454	71,300	70,967	73,063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전일수요예측 (GW)	실제-예측 (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1월 22일 9시(목)	157.1	104.2	88.5	80.8	9.6	86.4	2.2	15.6	17.7
1월 23일 9시(금)	157.1	104.3	87.7	79.7	10.0	85.7	2.0	16.6	19.0
1월 24일 19시(토)	157.1	98.5	73.1	65.4	11.8	69.1	4.0	25.4	34.8
1월 25일 19시(일)	157.1	98.5	71.4	64.0	11.5	67.7	3.7	27.1	38.0
1월 26일 10시(월)	157.1	103.7	86.7	64.1	35.3	82.0	4.7	17.0	19.6
1월 27일 9시(화)	157.1	103.9	85.3	61.9	37.6	80.8	4.4	18.7	21.9
1월 28일 9시(수)	157.1	104.2	86.5	59.7	44.9	83.2	3.3	17.7	20.5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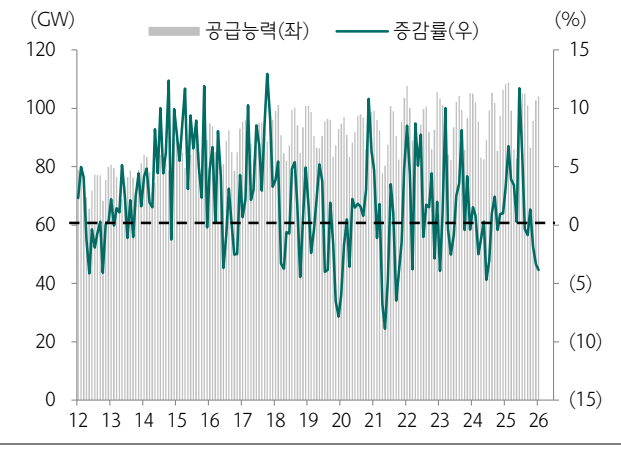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1월 5주차)

석탄	당 진	#8 : 1.20 – 1.28
	보 령	
	신보령	
	삼천포	#5 : 1.24 – 1.26
	여 수	
	영 흥	#1 : 1.1 – 10.1 / #2 : 1.1 – 10.1
	태 안	#2 : 1.9 – 1.21 / #5 : 1.20 – 1.29 / #7 : 1.8 – 1.20 / #9 : 1.9 – 1.22
	신서천	#1 : 1.24 – 2.11
	하 동	#6 : 1.26 – 4.16 / #8 : 1.14 – 1.26
	삼척그린	#1 : 1.27 – 1.30
	북 평	
	고 성	
	강릉안인	
	삼척화력	
국내탄	동 해	#1 : '25.12.29 – 2.23 / #2 : 1.1 – 2.23
원자력	고 리	#2 : '23.4.8 – '26.2.10 / #3 : '24.9.28 – '26.7.12 / #4 : '25.8.6 – '26.7.12
	신고리	
	한 빛	#1: '25.12.9 – '27.3.31 / #4: '25.10.25 – '26.2.4 / #6: 1.30 – 4.3
	한 울	
	신한울	
	월 성	#2 : '25.9.1 – 2.27 / #3 : '25.9.26 – 2.25 / #4 : '25.7.18 – 3.10
	신월성	#1 : 1.5 – 3.4
	새 울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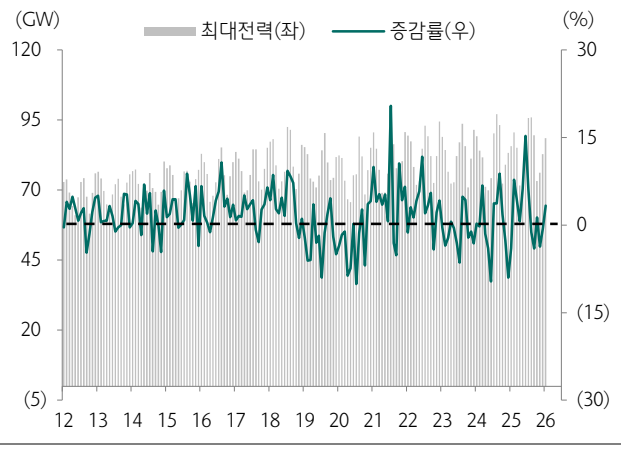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1월 22일 최대수요 기준 YoY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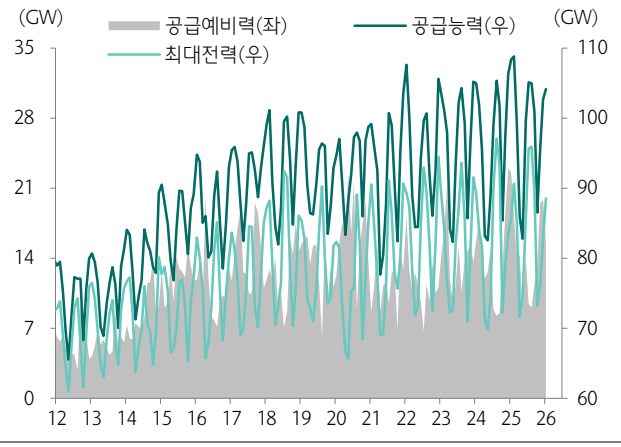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1월 22일 최대수요 기준 YoY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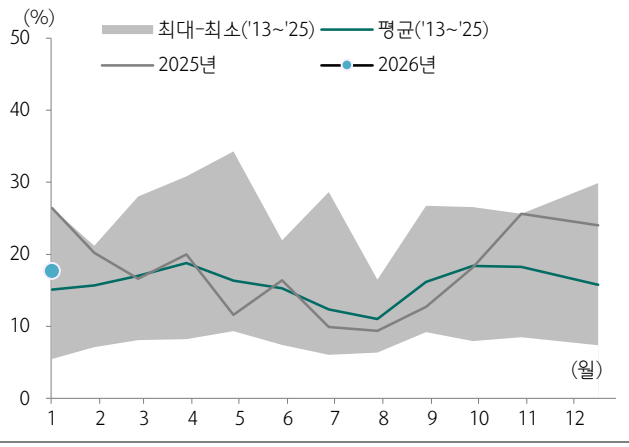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1월 22일 최대수요 기준 YoY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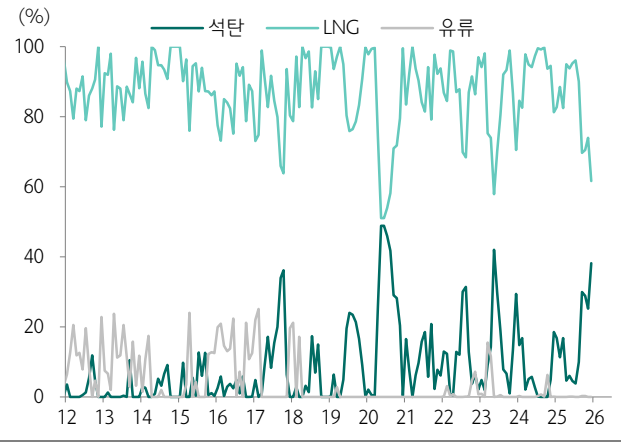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1월 22일 최대수요 기준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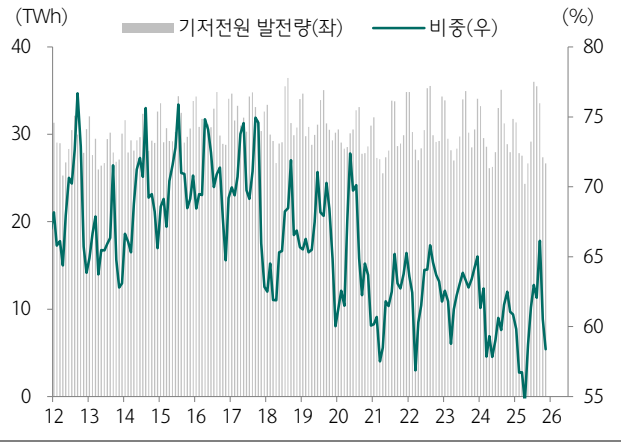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12월 기저전원비중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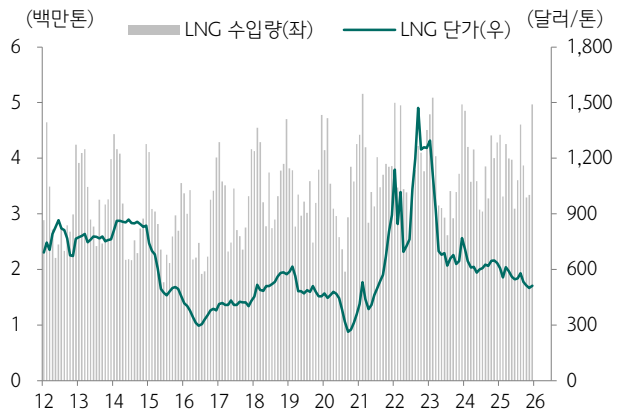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11월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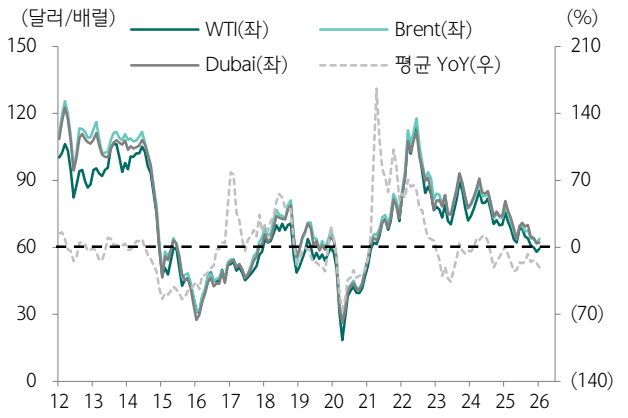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12월 YoY +16.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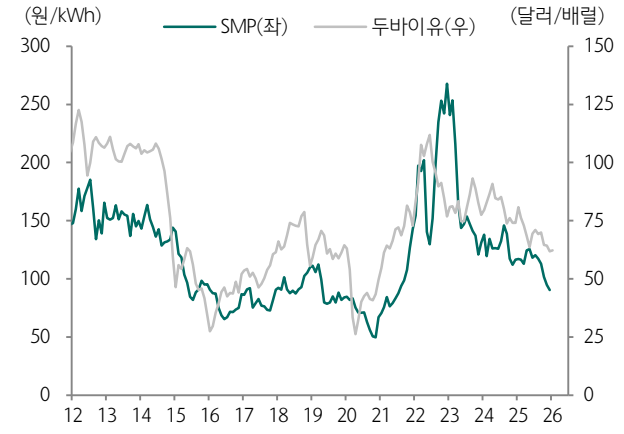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1월 3대 유종 평균 YoY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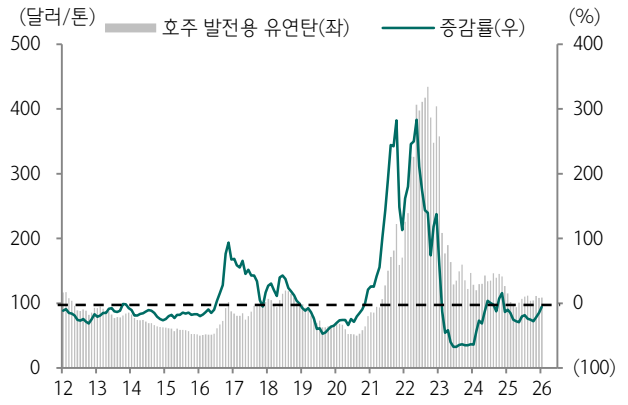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12월 SMP YoY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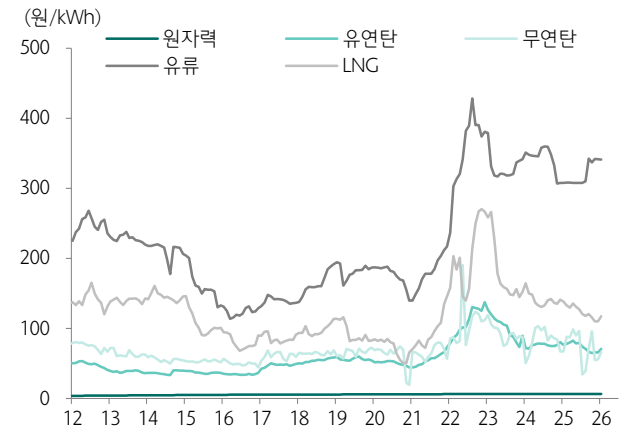
자료: EPS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1월 YoY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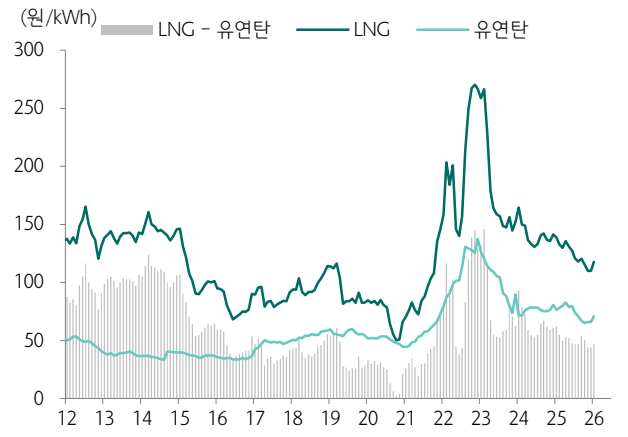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1월 LNG YoY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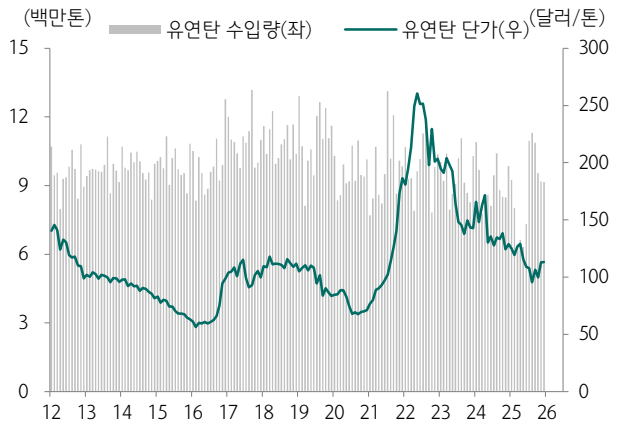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1월 46.97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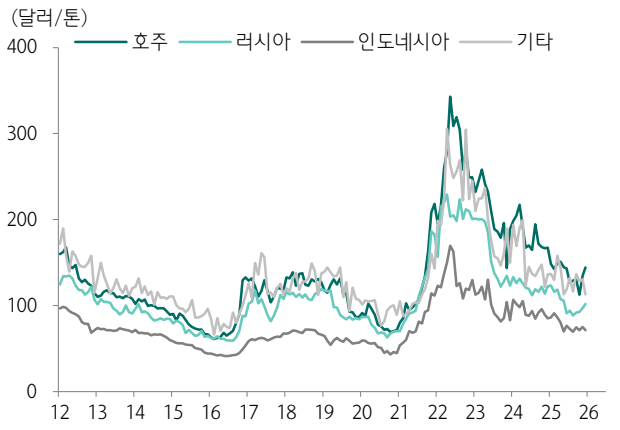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12월 YoY -7.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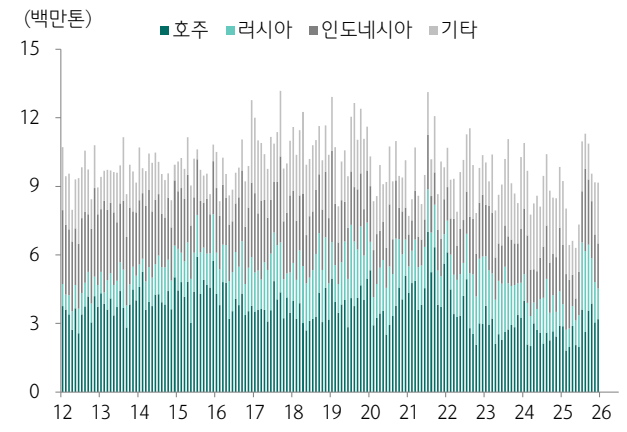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12월 호주 YoY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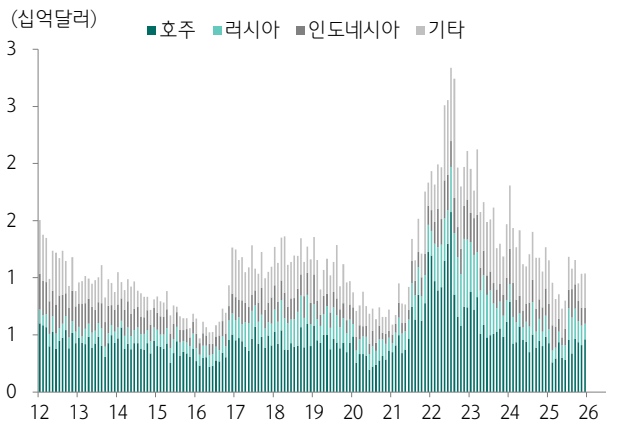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12월 호주 YoY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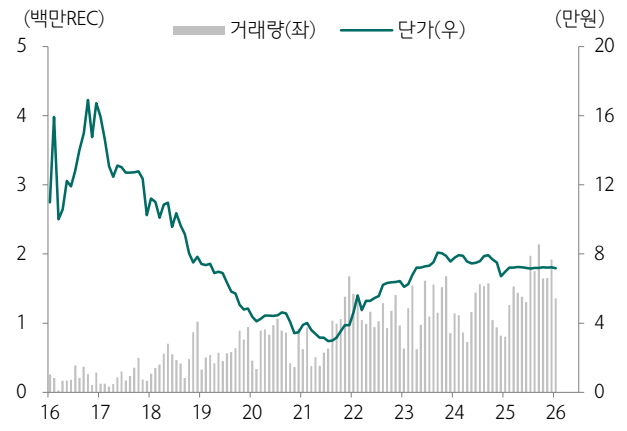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12월 호주 YoY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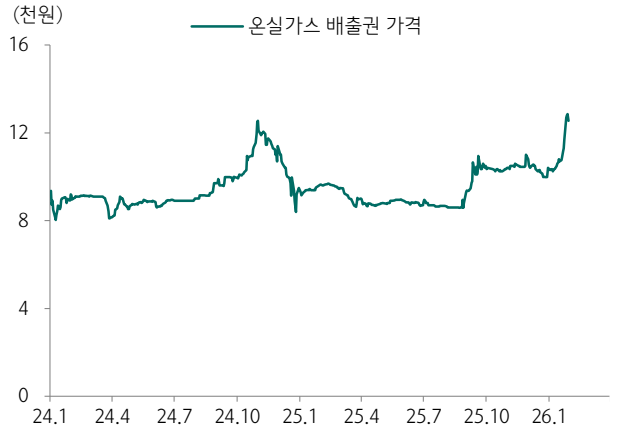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1월 YoY +69.1%/+2.7%)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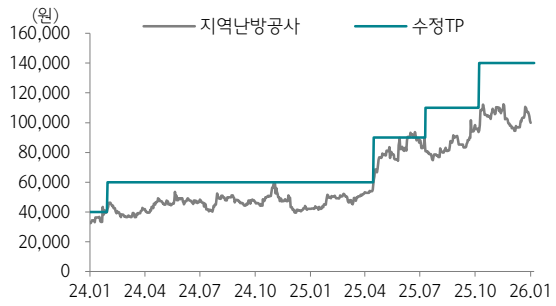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KOMIS,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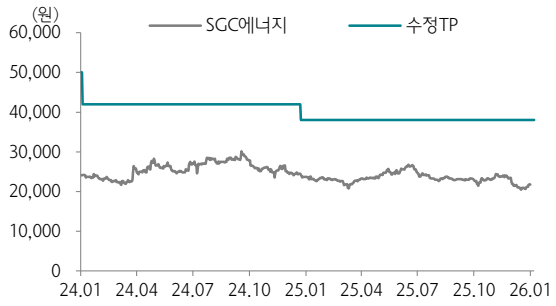
지역난방공사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5	BUY	140,000		
25.8.8	BUY	110,000	-22.37%	-7.64%
25.5.14	BUY	90,000	-8.49%	4.11%
24.11.1	BUY	60,000	-20.18%	-1.50%
24.9.6	BUY	-	-	-
24.2.27	BUY	60,000	-26.49%	-10.83%
23.11.10	BUY	40,000	-29.46%	8.38%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GC에너지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21	BUY	38,000		
24.2.1	BUY	42,000	-39.03%	-28.33%
23.4.13	BUY	50,000	-46.61%	-37.1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1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9%	4.2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27일